제3강 **정신분석의 말 I**
(1교시)

◆ 언어의 기능

▲ 꿈의 두 극

- 꿈에는 리비도적 강도 생산의 극과 무의식적 사고 표상의 극이 있다.
정신분석의 생물학적 공리: 유기체와 외부환경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진화론적 공리가 무의식을 물질적(리비도적) 생산 공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아 내부의 억압된 기억이 회귀하여 표상화 되는 극장으로 이해하게 했다.

작업에서 언어의 기능: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사고에서 '언어'가 갖는 기능에 주목했다. 특히 꿈-작업 중 '압축' 작업에서 언어표상이 무의식적 사고에서 사물표상과 동등하게 사용되는 점에 주목했다. "꿈의 압축작용이 가장 분명해지는 것은 그것이 압축하려 하는 대상에 말과 명칭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다. 본래 말이란 꿈에 의해서 사물인 것처럼 취급되며, 그때 말은 사물의 표상과 같은 합성작용을 겪는다."

사례: 어떤 청년이 밤늦게 친척의 방문을 받았는데, 벨만 울리고 명함을 놓고 갔다. 그날 밤의 꿈. 사무원 한 사람이 밤늦게 실내 전화기를 수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남자가 가고 났는데도 전화기는 계속 단속적으로 울린다. 하인이 다시 그 남자를 데리고 온다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 "참 이상하군요. 전에 튜텔라인(tutelrein)한 사람들도 이런 고장을 고치지 못했답니다."

분석: 아버지와의 유년시절. 밤에 잠자다 컵의 물을 엎질러, 옥내 전화기 줄을 적셔 전화기 계속 울려, 아버지 잠 깸. 문제는 튜텔라인이라는 말.
튜텔은 쿠라텔(Curatel)과 같은 '보호'의 뜻. 또 튜텔은 여자의 유방을 가리키는 속어. 깨끗하다는 의미의 접미사rein은 실내-전화기Zimmertelegraph의 첫 음절인 실내Zimmer와 결합하여 실내정돈Zimmerrein을 형성한다. 이 말은 유년시절 바닥을 적신 것과 연관되며, 이 남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도 암시한다.

- 꿈꾸는 중에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 사고한다. 그런데, 꿈-사고에서 단어는 단어 '전체'로 특정한 사물표상을 지시하지 않고 '부분'들로 분해 된다. 이렇게 단어들이 '부분'으로 분해되어 무의식적 사고 연쇄에 따라 결합되는 것은 단어의 청각적 표상이 '의미'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190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고 활동이 병적인 상태에서는… 단어의 의미 대신에 청각적인 표상이 전면에 부각되며, 그런 환자는 언어 표상의 '내적' 연상 대신에 '외적' 연상에 따라 발언을 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직 단어를 사물처럼 취급하는 데 익숙해 있는 어린이들에게서도 단어의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면 거기에서 같은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www.artnstudy.com

- 프로이트가 언어표상에서 '의미' 외부에 '청각표상'의 측면을 따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과, 이 둘의 관계는 '외적'(자의적)이라는 것, 그리고 의미(기의)와 청각영상(기표) 사이의 외적(자의적) 관계는 개인의 의식활동이나 통시적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모종의 무의식적 '체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동시대 소쉬르(『일반언어학강의』는 1916에 출판되었지만 소쉬르의 강의는 1900년도에 이뤄졌다)와 공통된 언어학적 에피스테메 속에 있기 때문이다.

▲ 언어의 세 지층

- 푸코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언어에 대한 경험과학은 세 가지 에피스테메의 교체과정을 밟았다고 말한다.

푸코

첫 번째. 르네상스 에피스테메 속에서 "언어는 우선 생생하고도 원시적인 존재 속에, 그리고 하나의 에크리뛰르(글)과 같은, 사물의 표징과 같은, 세계 내의 가장 소멸되기 힘든 형상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세계 내의 여기저기에 각인된 어떤 표식과도 같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인식론적) 지층을 '자연적, 사회적, 육체적 신체 위에 새겨진 문자'의 지층이라고 하자. (주역의 괘, 주술의 부적, 「메멘토」의 문신, 화폐)

두 번째.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에서 언어는 사물과의 비밀스런 연관관계를 잃어버린다. 언어 사물을 '살해하고' 사물을 언어표상의 내용(의미) 속에 매장했다. 표상의 지배권 속에서 사물은 이성의 분석작업(가장 단순한 표상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표상들의 동일성과 차이를 분절하여 도표화하는 활동)에 의해 형성된 기호들의 테이블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로 인해 "기호는 사물들을 판명하게 해주며 사물들을 나름대로의 동일성 속에서 유지해 주고 사물들을 분해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는 것"으로 되었다. 거기서 "기호와 기호내용의 관계는 사물 자체의 질서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 "능기와 소기의 관계"는 세계를 분석하는 이성적 지식 자체에 의해서만 보증된다. 이성적으로 분절된 언설 속에서 "사물들은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 속에서 사물들의 존재가 명명된다." 이 지층을 투명한 이성의 질서에 새겨진 기호의 지층이라 하자.

세 번째. 19세기 에피스테메에서 언어는 사물의 질서(자연)를 투명하게 표상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실증적 지식의 대상이 된다. 언어의 "표상적 제 기능으로부터의 후퇴"는 언어를 음성(음성학)과 문법적 요소(비교문법) 등 내부적 기능 요소들로 이뤄져 있으며, 역사 속에서

www.artnstudy.com

변천하는 유기적 통일체(어족연구, 비교언어학)로 보게 하였다. 언어가 문자적 단일체, 표상적 기호체가 아니라 음성이나 문법적 기능단위들로 이뤄진 '유기적 복합체'로 인식된 것은 이 때부터이다.

- 프로이트와 소쉬르가 언어의 음성적 가치(기표)와 의미적 가치(기의)의 외부적(자의적) 결합의 무의식적 체계(랑그)를 고찰한 것은 19세기 언어-실증주의의 터전 속에서 인간의 언어적 표상활동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하는 인간학적 지향의 결과이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언어와 소쉬르의 랑그(langue)는 이렇게 처음부터(이후 라캉이 둘을 결합시키기 이전부터) 동일한 인식론적 지평 속에서 출현했다.

www.artnstudy.com

(2교시)

◆ 떠도는 말들의 귀환

▲ 다섯 가지의 말실수

- 『꿈의 해석』이 꿈을 외(내)부 자극에 반응하는 뇌신경의 특이한 표상활동으로 본 19세기 생리학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꿈 표상의 무의식적 동기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게, '말실수'의 정신분석은 언어의 음성적 가치에 대한 19세기 실증주의적 언어-심리학과의 대결 속에서 출발한다. 1895년 메링어와 마이어는 『잘못말하기와 잘못읽기, 심리학적-언어학적 연구』에서 "단어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의 하나하나 혹은 단어를 전혀 특수한 방법으로 연결시킨 원인의 심리적 메카니즘"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말실수는 혼동, 선발음, 후발음, 혼합, 대치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혼동: 밀로의 비너스를 비너스의 밀로라고 하는 경우
선발음: 나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 이었습니다 es war mir auf der Brust so schwer를 es war mir *auf der schwest*라고 발음하는 경우
후발음: 선생님을 위해 모두 건배합시다 Ich fordere Sie auf, auf das Wohl unseres Chefs anzustoben에서 *an*zustoben'축배를 하다' 대신 *auf*zustoben '트림 합시다' 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
혼합: 고집을 부리다 er setzt sich einen Kopf auf와 저항하다 er stellt sich auf die Hinterbeine가 혼합되어 er setzt sich auf den Hinterkopt라고 말하는 경우
대치: 부란 상자에 표본을 넣어 두겠습니다. Ich gebe die Pärparate in den *Brüt*kasten이라고 할 것을 우편함에 in den *Brief*kasten이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

- 메링어는 단어의 음성적 가치(강세)에 대한 신경 자극의 반응을 전제로 "심리적으로 더 강렬한 음의 자극은 그 음의 전후에 영향을 미쳐 선발음이나 후발음 현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보다 덜 강렬한 신경자극 과정을 교란 한다"고 설명한다. 말실수(특히, 선발음, 후발음, 혼합)를 문장 내부의 각기 다른 음성적 가치에 반응하는 심적 강도의 (전진적, 역전적) 이동과 접속(혼합, 대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떠도는 발화 이미지

-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어떤 단어의 발화를 방해하는 잠재된 발화 이미지, 즉 뒤에 나올 것이나, 이미 나왔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떠도는 발화 이미지"를 무의식의 발화로 정식화시킨다. 메링어가 말한 언어적 강도의 흐름, 이동, 접속은 문장 내부의 '소리들의 접촉(간섭)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장 외부의 잠재적 사고, 또는 무의식적 발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례 1: 여자 친구와 여름 별장에 대해 얘기하던 중, M에 있는 친구의 별장이 어느 곳에 세워졌는지를 듣고서 산기슭 Berglehne이라고 말할 작정이었는데, 산허리 Berglende라고

www.artnstudy.com

잘못말했다. Lende는 넓적다리, 그녀는 어렸을 때 남자의 욕망에 불타는 손이 자신의 넓적다리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말실수를 통해 억압된 관념이 탈출구를 찾은 것.

사례 2: 돌로미텐으로 여행객 복장을 한 두 명의 여성과 동행. 여행의 고충을 얘기하다가 한 여성이 "사실 이예요. 햇볕 속에서 하루 종일 걷는다는 것은 정말 유쾌하지 못해요. 블라우스와 속옷까지 땀에 젖는다니까요" 하고는 말을 우물거리며 "하지만 속바지Hose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때는..." nach Hause(집에)라고 말하려 했는데, 발음이 비슷한 nach Hose란 말이 나옴. 음성적 가치의 유사성 자체가 말실수의 원인이 아니라, 억압된 관념의 표현 동기가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

사례 3: 어떤 젊은 남자가 거리에서 여성에게 "괜찮으시다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려 했는데 <동행하고 싶다 Begleiten>라고 하지 않고 'Begleit-digen'이라고 말했다. 여자를 <모욕하는Beleidigen>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 '순수하게 동행하고 싶다'와 '성적으로 모욕하고 싶다'는 서로 모순 되는 생각이 단어 '혼합'을 통해 타협한 것이다.

▲ 잃어버린 이름의 귀환

- 어떤 말이 억압될 때 그것은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고유명의 망각에서 무의식적 언어활동의 특성을 발견한다.

프로이트 자신의 사례: 1898년 오르비에토 성당의 <최후의 네가지 일들>이라는 프레스코화를 그린 화가의 이름(Signorelli) 망각. 대체이름으로 보티첼리Botticelli와 볼트라피오Boltraffio란 이름이 떠올랐다.

망각상황: 헤르체고비나의 어떤 지역으로 한 이방인과 자동차 여행 중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르비에토 성당의 프레스코화의 작가 이름을 거론할 때.

그 이야기 직전 상황: 보스니와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터키인들의 관습에 대해. 그들은 의사에 대해 대단한 신뢰감을 지니고, 운명에 대해서는 체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료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선생님Herr,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할 것이다. 터키인들의 성에 대한 높은 가치와 그들의 체념적 운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만 것이다. 왜? 마음 속에 죽음과 성이라는 주제가 떠올랐기 때문. 그때 트라포이에 머물기 몇 주전 환자가 불치의 성적 질환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받은 일이 기억 남. 트라포이와 볼트라피오의 유사성. 여기서 억압된 주제는 트라포이(성적질환으로 죽은 환자)-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터키인의 관습)에서 환기되는 죽음과 성욕이라는 주제이다.

Signor + elli　　Bo + tticelli　　Bo + l + *traffio*

Her + zegovina　　Bo + snia

Herr,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트라포이traffoi*

www.artnstudy.com

- Signor -> Herr: 번역(선생님) -> 헤르체고비나(음의 유사성), 보스니아(헝가리 제국에 속하는 두 지역은 습관적으로 한곳처럼 언급된다. 연상의 전위)
대체이름: 보티첼리 -> 보스니아(음의 유사성) -> 터키인들의 성과 운명론(보스니아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의 관습. 연상의 전위) 볼트라피오-> 트라포이(음의 유사성) -> 죽음과 성의 주제를 내포한 환자(연상의 전위)

▲ 무의식적 언어활동의 특징

- 그림 수수께끼의 원리처럼 한 단어나 한 문장은 '단일체'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각각의 부분-표상들은 이질적인 계열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부분-표상의 원리

- 단어의 부분-표상들은 의미론적 유사성이나 음성적 유사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Herr -> Signor(선생님의 번역) / Herzegovina -> Herr, Bosnia -> Botticelli (유사관계에 의한 대체의 원리)
단어의 부분-표상들은 하나의 잠재적 문장 속에서 인접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표상들로 전치될 수 있다. Herr(터키인의 말) -> Bosnia (보스니아에 사는 터키인들은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죽은 환자 -> 트라포이 (트라포이에 머물기 전 나는 한 여자환자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인접관계에 의한 전치의 원리)

www.artnstudy.com